

2024 년 10 월 13 일 “(생명의 공동체 9) 올바른 자기사랑으로”(눅 10:25-28)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기 사랑’의 중요성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자신에게 돌아올 때**

열심히 살다가 자신에게 돌아와야 할 때를 만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병에 걸리면, 자신을 돌보는 일이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 남을 의식하며 살았지만 결국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치열한 자기 돌봄 끝에는 성취감이 찾아 옵니다(자기 사랑의 결과). 또한 성취감을 넘어 새로운 눈이 열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며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 처할 때가 자신에게 돌아와야 할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때, 주님은 내가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도우십니다.

요 5 장, 베데스다 연못 가에 38 년된 중증 병자에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낫고 싶으냐?’(네 안에 진정으로 치유되기 원하는 소중한 네 자신을 재발견하고 회복하라는 뜻)

**[2] ‘네 몸과 같이’**

12 세기 사랑의 성자, 세인트 버나드(영성가, 신학자)는 네 단계의 사랑을 말합니다.

1.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 – 이기적 사랑
2.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 – 하나님을 알았지만 여전히 이기적
3.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 – 하나님 본질을 찾고 사모하며 헌신
4.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 –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찾고 사랑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고 ‘그 사랑으로 너 또한 사랑하라,’ 그리고 네 몸과 같이 이웃도 사랑하는 것을 무엇보다 당부하십니다.

자기 사랑에 대하여 거부하고 비성경적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딤후 4:2 같은 구절에서 나타나는 타락의 맥락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기 사랑은 파국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저급한 단계에 속한 사랑일 뿐입니다.

성경은 이웃 사랑의 키가 되는 깊은 차원의 자기 사랑을 말합니다. 신약 서신서(바울과 야고보)에서 본문 말씀을 강조합니다.

**롬 13:9 후** “모든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갈 5:14** “모든 율법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하신 한 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엡 5:28** “...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약 2:8**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잘 하는 일입니다”

### [3] 자기 사랑은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잠 19:8** “지혜를 얻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

자기 사랑은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 속에서 지혜를 얻어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이미 알고 있다해도, ‘지금’ 나를 소중히 여기심을 ‘거듭’ 재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 우리는 건설적으로 자신을 성찰할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는 자기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관점을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높은 자기인식).

주님과 동행할 때 얻는 지혜 속에서 자기 성찰 – 자기 인식 – 자기사랑은 사랑의 능력을 얻는 통로입니다.

부디 성경적인 자기사랑을 회복하는 성도님들 되어 이웃 사랑의 보람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 [나눔의 질문]

1. 나를 위해 나를 사랑 vs 하나님을 위해 나를 사랑하는 모습은 어떻게 다를까요?
2. 묵상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시는 음성을 듣고 확신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